

김준의 갯살이



## 어머니 손맛으로 소통하는 설

며칠 전 무안갯벌에 갔다가 갑자기 놀랐다. 물에는 하얗게 눈이 쌓였는데 갯벌은 은통 푸른색이었다. 마치 축구경기장처럼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가시가 많았다.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짹을 지어 파래를 매고 있었다. 대목장을 준비하려는 것도 있지만 설 명절에 자식들에게 바다 맛을 보여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

파래는 무안 탄도만이나 신안의 매화도나 반월도 박지도 등 크고 작은 청정지역 갯벌에서 자란다. 완도 일부 지역에서는 양식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파래는 겨울에 자랐다가 봄이 되면 거칠어진다. 그리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누렇게 죽는다.

김, 매생이와 함께 겨울을 대표하는 '바다 채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주부들의 반찬 고민을 덜어준다. 날씨가 추워야 잘 자라고 맛과 향이 좋기 때문이다. 신선한 제철 채소가 없어 자칫 균형을 잃기 쉬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풀, 두풀, 세풀, 네풀, 밤과 낮. 지구상에 모든 생물은 철이 있

다. 특히 바다채소는 철을 무시하고 억지로 키울 수 없다. 육류와 함께 바다음식은 인간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특히 사람이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다. 소화가 잘 되고 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노인뿐만 아니라 뇌발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다.

이러한 기능보다 바다음식이 더 좋은 것은 계절음식이며, 슬로푸드이기 때문이다. 양식을 하더라도 자연의 시간에 맡기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또 물에 자라는 채소와 다르게 만들어진 환경이 아니라 자연환경에서 자란다.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도 바다는 따뜻하다. 그래서 갯벌에는 온갖 해초들이 자란다. 봄은 바다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봄은 꽃이 피기 전에 바다맛으로 봄을 느낀다.

남쪽 깊은 바다에서 오는 봄의 기운을 송어, 간재미, 물메기 등이 먼저 맞는다. 봄나들이 밤상에 오르기 전에 매생이탕, 파래김치, 물메기탕, 굴회, 송어회가 봄을 알린다.

물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손색이 없다. 한 겨울에 봄을 맞을 진짜 보약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

지구의 삶과 만상은 바다와 함께 순환한다. 밤상에서 자연순환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 선조들은 밤상에서 이를 실천했다. 모두 제철음식이다. 날씨가 따뜻하면 땅에서 얻고, 날씨가 추우면 바다에 의존했다. 제철에 나는 것을 말리고, 갯벌 천일염으로 절여서 보관했다. 음식으로 만들어 몸에 좋은 영향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

음식은 소통이다.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사람과 물사람은 어민들과 통해 야 한다. 그것이 지역과 지역문화를 살리는 길이다.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냥 먹을 거리일 뿐 바다와 물, 섬사람과 물사람의 소통은 없다. 불통이다. 소통은 우리 갯벌에서 나는 것을 밤상에 올리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는 어떤 정책보다 강하다. 밤상의 선택이 자신과 가족의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촌을 살리고, 어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아주 쉬운 일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입맛

이 변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졌다. 더 늦기 전에 밤상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보다 학교에서 자주 밥을 먹는다.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선택이 가장에서 만큼이나 중요하다. 농산물은 유기농을 공급해야 하고, 친환경 수산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교 교육과정에 음식교育을 포함시켜야 한다. 잊어버린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내일 모레면 설명절이다. 고향을 찾기 위해 내려오는 사람과 자식들을 찾아 올라가는 부모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모처럼 밤상이 어머니의 손맛으로 가득해 질 것이다. 그 맛을 찾아 먼 길을 참고 가는 것이다. 그 맛을 잘 기억했다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밤상의 자연순환 원리를 회복하는 일이 어촌을 살리고 농촌을 지키는 일이다. 무안 갯벌에서 사온 파래가 밤상에 올리왔다. 오늘 저녁은 갯벌을 지키는 밤상으로 한 상 그득해지길 기원해본다.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 의식(儀式)에 관한 단상

김 병수  
전남지방 우정청장

2월이다. 2월은 졸업과 입학시즌으로 해어지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을 공존한다.

올해는 설 명절도 있고 정부의 교체도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필자에게 떨어지는 것이 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의식(ritual)이다. 우리 사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 세상사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고 느낌을 매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간 전통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우리 사회의 문화나 의식들은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된 문화와 의식들이 새해, 출생과 사망, 입학이나 졸업 등 중요한 세상사에 대하여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를 공감토록 하고 있는지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의식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우리들의 삶에 감동이나 정서의 순회를 가져 오지 못한다. 이는 곧 개인이나 사회의 창조적 역동성 또한 잊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을 들이켜 보면 그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때문인지 개인이나 사회의 중요한 의식에 있어 그 표현이 다소 소홀하고, 표현양식 또한 좀 단조롭다는 느낌이다. 필자의 생각은 우리 사회의 의식에 말(言)과 글(語)의 성장이 좀 더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의식에 있어 동서양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우 말을 많이 아끼고, 또한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가슴에 담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각종 기념일의 연설이나 인사말 등을 보면 짧고, 상투적이다 싶을 정도로 수사(rhetoric) 또한 부족하다. 동양문화에서 말 줄임의 교훈을 모르는 바 아니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듯이 말과 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아니되었다. 앞으로 '의식(儀式)이 의식(意識)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으로 각종 의식에서 통찰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말과 글의 향연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곧 다가온 졸업과 입학은 누구에게나 뜻 잊을 순간들이 감동으로 교차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장이다. 처음 학교의 정문을 들어서는 설렘, 입학식장에서 낯선 친구들과 풀을 서서 마주하는 풍경과 분위기는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다. 졸업 또한 인생에 있어 한 단계 올라서는 성숙의 기쁨과 학창시절 함께 지지하고 북고 한 친구들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담아내는 장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그 의미와 느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교육계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당국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나 친지 등이 행하는 의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가족 친지들이 행하는 입학과 졸업의식은 많은 경우 사진을 함께 찍거나 의식을 하는 것에 그친다. 한데 요즘 디지털 사진 찍기는 너무 쉽게 많이 찍는 까닭에 추억이 오히려 반비례하는 느낌이다.

그러한 의식은 모두 다 말보다 또 한 끼의 외식보다 우리들의 삶을 오래도록 기록하고, 또 오래도록 추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벌써 졸업식장에서 교장선생님의 멘션 졸업 기념 축사가 펼쳐지고, '소통'이 존재이유인 우리체도 더욱 바빠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급하다.

물론 정겨운 모습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것 또한 오래도록 남을 의미나 정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의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은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우체국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간다. 조만간 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자녀와 가족들의 추억을 담은 사진이나 축하 메시지를 우체국의 "나만의 우표"로 만들어 선물하면 어떨까 싶다. 나만의 우표는 축하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실제 우표로 만들어 나누는 특별한 형태의 기념문화이다. 졸업앨범이나 학교생활의 추억을 담은 공식기록이라면, 나만의 우표는 어린 시절 성장의 추억을 담아내는 가족의 기록이라고 하겠다. 친지들의 경우는 정성으로 써내려간 축하 편지나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

그러한 의식은 모두 다 말보다 또 한 끼의 외식보다 우리들의 삶을 오래도록 기록하고, 또 오래도록 추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벌써 졸업식장에서 교장선생님의 멘션 졸업 기념 축사가 펼쳐지고, '소통'이 존재이유인 우리체도 더욱 바빠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급하다.

변호사의 역사는 고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변호사는 공식 직업은 없었지만 법정 역할을 하는 원로원에서 피고의 변론을 맡는 사법을 변론가라고 했다.

당대 최고의 변론가는 단연 키케로였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카이사르를 돌보이기 위해 키케로를 편집하면서 키케로에게 변론을 맡겼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이나 정부부처에서 변호사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대기업에서도 과장급

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6급 공무원으로 선발했고 삼성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리급으로 채용했다.

급기야 부산시가 전국 지역체증 처음으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7급 변호사의 임용 첫해 연봉은 수당·상여·성과급을 합쳐 2500만 원 가량이다. 7급 변호사의 탄생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반전은 화려한 변론에서 시작됐다.

교육을 줄이고자 일선 학교에 개설돼 있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지난 2010년 60.3%에서 2011년 56.1%, 지난해에는 56.5%에 그쳤다. 방과후 학교 강좌 개설이 학교별로 최대 35개에, 동일 과목 수강료도 5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 정부가 입시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 학원 단속 및 사교육 없는 공교육 활성화 등 '사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방에 무용지물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교육 문제의 해답은 공교육 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시 교육청은 먼저 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사교육의 존경감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겪어야 새기고,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정부도 말로만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대입 논술 비중 축소 등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社說

## 광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은 뭘 하나

사교육비가 여전히 서민 계층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 사정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든 데 반해 가족이나 경제여건이 열악한 광주는 오히려 4년 연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서울(-4.9%)·인천(-5.1%)·경기(-7.4%) 등지의 사교육비가 줄어든 반면, 광주(6.9%)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광주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0만 9000원에서 2011년 21만 3000원, 2012년 23만 1000원으로 4년 사이에 2만 2000원이나 상승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학원 및 고액 과외의 성행 등이 주요 요인이다. 광주에 분원을 잇달아 개설한 수도권 기업체 학원과 과목당 30~50만 원에 달하는 영어·수학 등 고액 과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사교육 절감 정책에 있음을 말해 준다. 사교육을 줄이고자 일선 학교에 개설돼 있는 대입제 개선, 학원 단속 및 사교육 없는 공교육 활성화 등 '사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방에 무용지물인 셈이다. 그럼에도 사교육 문제의 해답은 공교육 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시 교육청은 먼저 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사교육의 존경감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겪어야 새기고, 방과후 학교에 대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정부도 말로만 개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대입 논술 비중 축소 등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영세농가 죽이는 대기업의 '토마토 농사'

골목상권 잡식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토마토 농사까지 뛰어들어 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의 유리온실 부대시설에 국비까지 지원됐다고 하니 영세 농민 입장에서 선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부그룹 계열사 <sup>(주)</sup>동부팜화옹이 동양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경기 화성)에서 오는 5월부터 연간 5000t이라는 어머이마한 양의 토마토를 출하할 예정이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sup>(주)</sup>동부팜화옹(충남 논산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1000t)을 출하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는 토마토를 대량 수확해 전량 수출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중 일부가 내수시장에 풀리게 돼 가격 폭락과 함께 지역 토마토 농가들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첫 한두 해는 수출을 한다고 해도 서울 가락동에 청과회사까지 운영하는 동부가 내수로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영세 농민들의 '밥그릇'인 농산물 생산분야를 넘볼 게 아니라 종자산업과 같은 국가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정부도 영세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함은 물론 국가 미래 전략산업에 국비를 투입하는 등 재정운용을 보다 꼼꼼히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키케로는 '베레스 반박문'으로 불리는 장문의 변론서를 통해 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 반박문은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이나 변호사들에겐 중요한 교본이 됐다.

키케로에서 시작된 변호사는 직업은 2100여년 동안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위상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이나 정부부처에서 변호사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대기업에서도 과장급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6급 공무원으로 선발했고 삼성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리급으로 채용했다.

급기야 부산시가 전국 지역체증 처음으로 변호사를 7급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7급 변호사의 임용 첫해 연봉은 수당·상여·성과급을 합쳐 2500만 원 가량이다. 7급 변호사의 탄생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반전은 화려한 변론에서 시작됐다. /정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 종교칼럼

## 좋은 봄날 꿈을 꾼다

도 권  
백양사 포교국장

지난겨울은 혹독하였으나, 어김없이 세월의 수레바퀴는 굴러 입춘이 지나고 있다.

오늘도 소슬히 이슬비가 뿌리고 있는 백암산!

이 비가 그치면 언덕배기 양지녘엔 쑥잎이 과제지겠지.

출가할 때 저마다 가족을 여의고 나름대로 꿈이 있었겠지.

어른들과 교사, 학부모 모두 길이 되새겨 봐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학생은 어머니가 전국 1등을 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하다며 밥을 안 주거나 잡을 못 자게 했고, 체벌까지 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부모가 성직 말고 아이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적이 언제쯤이었는지, 아이 혼자 무슨 고민을 안고끙끙 앓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아이 얼굴을 쳐다봤을 것이다.

로의 가치와 이념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정 상표의 재킷을 입지 않으면 업신여김 당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끼리끼리 어울려 자들만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기운센 아이들은 친구들 위에 군림하여 힘을 뽐내는 것은 어쩌면 어른들에게 배우는 못된 학습의 결과 일수도 있다.